

나무 위로 올라간 식물학자 마거릿 D. 로우먼 이야기

이파리 탐정

독서 활동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진정한 영웅이자
용감한 탐험가인 마거릿 D. 로우먼의 삶과
신비로운 우듬지의 세계를 그린 그림책



헤더 랭 글 | 제나 크리스티 그림 | 김희정 옮김 | 값 16,000원 | 초등 전 학년

교과 성취기준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6학년 사회, 도덕

-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이파리 탐정》의 매력



우리, 겨루기를 한번 해 볼까요?

누가 가장 경이로운 모험을 해 봤는지 말이에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 보았는지 뭐 그런 겨루기요. 우리 중,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본 건 누구죠? 그럼, 이 겨루기는 어때요? 하늘 가장 높이 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패러글라이딩을 했다고요? 비행기를 타 보았다면 이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주까지 가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승할지도 모르죠.

우주비행선을 타고 달까지 가 본 건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미지의 탐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탐험은 잠수함도 열기구도 아닌 밧줄과 새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탐험이었거든요! 바로 세계 최초로 열대 우림 속 하늘을 찌를 듯 키가 큰 나무의 우듬지에 발을 디딘 메그 로우먼의 이야기입니다.

‘위에 달린 이파리나 아래 달린 이파리나 뭐 다를 바 있겠어?’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것보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이파리보다 더 그럴듯한 걸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메그가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했고, 그 생각에 굴복하고 말았다면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높은 나무 우듬지에서의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를 알아내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또, 풍성한 숲이 빈곤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일도 무척 기쁜 일이지만, 그 일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벅차고 의미 있는 일이지요. 세상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이파리처럼요.

김여진(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서울상신초 교사)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운영진으로 매달 그림책 애호가들과 깊이 교류하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그림책을 번역하며 창작의 기쁨을 독자들과 나눕니다.

· 집필도서 《소녀들에게는 사생활이 필요해》, 《그림책 한 문장 따라 쓰기 100》, 《피땀눈물, 초등교사》

· 번역도서 《모네의 하나뿐인 양산》, 《엄청나게 커다란 소원》, 《집 안에 무슨 일이?》, 《달팽이 헨리》, 《나는 () 사람이예요》, 《나는 나예요》, 《선생님을 만나서》, 《독자 기르는 법》 등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높은 나무 위에 올라온
주인공의 심정은 어떨까요?

동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지녔나요?

나무에 올라오니 어떤 동물들이 보이나요?

주인공은 어떤 장치로 나무에
매달려 있나요?



내 꿈을 이루고, 세상에도 기여할래요



메그는 나무 맨 위 우듬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엔 어떤 동물과 곤충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직업:

생태학자, 과학자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가서 난초와 양치식물을 구별하고 채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커서 되고 싶은 직업:



그 직업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독서 후
활동 ③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짚어 보아요



어린 소녀였던 메그가 당당한 생태학자로 성장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며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그림의 번호를 써 보세요.

() → () → () → ()



1번



2번



3번



4번

2024년 1월 13일



독서 후
활동 4

메그의 눈에 포착된 동물과 곤충

메그는 높이높은 우듬지에 올라 수없이 많은 곤충과 동물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림과 초성을 보고 이름을 찾아 적어 보세요.



(ㄷㅂㄹ) → ()



(ㄱㄱㅇㅁ) → ()



(ㄱㅎㅇㅅㅇ) → ()



(ㄷㅎㅅㄱㄱㄹ) → ()

출처: 1. 대림 2. 기록비 3. 고현원 4. 동화비



《이파리 탐정》은 현장 생물학 탐험가로 앞장서며 '숲 우듬지 생태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개척한 메그 로우먼이 등장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살이 읽고, 아래의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동그라미 쳐 주세요.

퀴즈1 메그의 어린 시절에는 본보기가 될 만한 여성 과학자가 많이 있었어요.

(O, X)

퀴즈2 메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무 위로 길을 낸 '우듬지 통로'를 최초로 발명했어요.

(O, X)

퀴즈3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벌레처럼 침을 쏘아요.

(O, X)

퀴즈4 메그는 맨 처음 아프리카에 가서 나무를 연구했어요.

(O, X)

퀴즈5 대부분의 초식 동물은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은 이파리를 먹어요.

(O, X)



답문 1.X/2.O/3.O/4.X/5.O

글 © 김여진 그림 © 제나 크리스티, 2024

※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